

SKT, 5월부터 5G 중간요금제 출시… 月 최대 1만원 절약

SKT, 업계 최초 맞춤형 선보여
청년·시니어 특화 혜택 기대도

과기통 “고객 선택지 2배 확대”
KT·LGU+도 조만간 출시 예정

SK텔레콤이 5월 1일부터 데이터 13GB에서 99GB를 커버하는 5G 중간요금제를 선보인다. KT와 LG유플러스도 조만간 중간요금제를 내놓을 계획이어서 50GB 이상의 중간요금제가 보편화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23일 고객의 다양한 이용 패턴과 연령대 특성을 고려한 5G 요금제 개편을 통해 요금 상품 다양화 및 선택권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5G 맞춤형 요금제로 중간요금제를 선보이고, 신규 시니어 요금제도 선보이기로 했다.

SKT의 5G 요금제 개편은 오는 3월 말 ‘5G 시니어 요금제’ 출시를 시작으로 5월 ‘5G 중간 요금제’, 6월 5G ‘0청년 요금제’ 출시까지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SKT의 5G 요금제는 기존 총 20종에서 45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해 고객의 요금 선택권도



서울의 한 종합이동통신 대리점의 모습.

/뉴스시스

확대했다.

SKT는 지난해 8월 출시한 5G 중간요금제인 베이직플러스(월 5만 9000원)를 기본으로, 추가 데이터 옵션 4종 중 고객이 원하는 하나를 조합해 이용하는 ‘5G 맞춤형 요금제’를 업계 최초로 오는 5월 1일 선보인다.

5G 맞춤형 요금제에서 선택 가능한 옵션은 월 ▲3000원(+13GB) ▲5000원

(+30GB) ▲7000원(+50GB) ▲9000원(+75GB) 등 총 4종이다. 예를 들어 월 데이터 사용량이 평균 50GB정도 되는 고객은 월 5만 9000원의 베이직플러스 요금제에 5000원을 추가해 월 6만 4000원에 데이터 54GB(24GB+30GB)를 사용할 수 있다.

SKT는 또 오는 6월 1일 만 34세 이하 5G 고객을 위한 ‘0(영)청년 요금제’ 7종

과 ‘0(영) 청년 맞춤형 요금제’ 4종 등 총 11종을 새롭게 선보인다.

청년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하고 특화 혜택을 추가 제공해 청년층 고객의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T는 0청년 요금제 출시로 만 34세 이하 고객 6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만 65세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4만원대 신규 요금제 3종도 내놓는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경향을 감안해 월 4만5천원에 데이터 10GB를 제공하는 ‘5G 시니어 A형’(만 65세 이상), 월 4만4천원에 9GB ‘5G 시니어 B형’(만 70세 이상), 월 4만2천원에 8GB ‘5G 시니어 C형’(만 80세 이상)으로 구성했다.

월 10GB 이내를 사용하는 만 65세 이상 이용자라면 일반 5G 요금제를 쓸 때보다 월 4000~7000원을 아낄 수 있다. 또 시니어 요금제는 선택 약정 할인과 기초연금 수급자 복지감면, 결합할인이 중복으로 적용된다.

더불어, 해당 요금제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 소진 이후에도 추가과금 없이

최대 1Mbps의 속도로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기본적인 동영상 시청에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다. 또 영상·부가통화 제공량은 일반 요금제보다 100분(33% ↑) 더 제공한다.

SK텔레콤 요금제 신고를 수리한 과 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요금제가 기존 20종에서 45종으로 2배 이상 다양해졌다”며 “특히 만 19~34세 이용자는 청년 요금제로 통신 요금을 월 최대 1만원 가량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KT측은 “고객의 통신 이용 패턴을 감안해 새로운 5G 중간요금제 및 시니어 요금제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도 “국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요금제를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이 50GB 이상의 5G 중간요금제를 내놓은 것은 정부에서 이통사들에 이 같은 요금제를 마련하라고 적극 권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이를 크게 고민해왔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장재훈 “소프트웨어 중심 모빌리티 주도”

〈현대자동차 사장〉

제55기 정기 주주총회

올해 전동화 모델 점유율 확대 계획
출고 대기시간 최소화 등 고객 편의↑
호세 무뇨스 신규 사내 이사 선임

현대자동차가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업으로 체질 개선에 드라이브를 건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이 23일 서울 양재동 사옥에서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회사 전반의 시스템을 전환해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것”이라며 “전동화 차량 시장에서 톱-티어 브랜드 달성을 위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앞서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차종을 ‘SDV’로 대전환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또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세계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종에 무선(OTA, Over-the-Air)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기본 적용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장재훈 대표이사가 3월 23일 현대차 양재동 본사사옥에서 진행된 제5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현대차는 올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전동화 모델의 점유율 확대에도 힘을 쏟는다. 장 사장은 “충전 편의성 강화와 에너지와 통합된 서비스 패키지 등 전기차 사용 전반에 걸쳐 고객의 편의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N 출시를 통해 전동화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올해 차량 출고 대기시간 최소화과 금융 프로그램 강화 등으로 고객 편의성 극대화에 나선다. 장 사장은 “전기차 현지 생산 체계를 강화하고,

본격적으로 전동화가 시작되는 신흥시장에서도 지배력을 확대해 글로벌 전기차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다”며 “수소생태계 이니셔티브 확대, HMGICS 제조 혁신 신기술 고도화를 비롯해 로보틱스, AAM 등 미래사업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이날 호세 무뇨스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해외 시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사회의 글로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양성문 기자 ysw@

SK온, 생산량 약 5만톤 전구체공장 착공

에코프로·GEM과 1조2100억원 투자
새만금개발청 지원·혜택 고려해 결정

SK온과 양극재기업 에코프로, 전구체기업 중국 GEM(Green Eco Manufacture)이 참여한 ‘지이엠코리아에너지머티리얼즈㈜’는 24일 전북 군산시 라마다호텔에서 전구체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협약에 따라 3사는 최대 1조 2100억원을 투자한다. 2024년 완공 목표로 연간 생산량 약 5만톤 수준의 전구체공장을 연내 착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이엠코리아는 전구체 생산능력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인력을 고용할 예정이다.

전구체는 양극재 원가의 65%~7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원료다. 니켈, 코발트를 섞은 화합물이다. 전구체 5만톤

은 전기차 30만여대 분(1대당 105KWh 기준)의 배터리에 필요한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새만금공장 전구체는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별도의 3사 합작법인에서 생산하는 니켈 중간재(MHP)를 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3사는 2024년 3분기부터 연간 순수 니켈 약 3만 톤에 해당하는 MHP를 양산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3사는 새만금개발청의 지원 정책과 보조금 혜택, 수출입 관련 내륙운송 및 해운 등 물류 인프라를 비롯해 다양한 운영상의 이점을 고려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투자를 결정했다.

최영찬 SK온 경영지원총괄 사장은 “하이니켈 개발 등 앞선 기술력을 증명해온 SK온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원소재 공급망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윤경림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 사의

3번 백지화 상황…리더십 공백 위기
인사·조직 개편도 큰 차질 빚을 듯

윤경림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사진)가 사의를 표명했다. KT 이사회는 사의를 반려하고 윤 사장을 설득했지만 23일 받아들였다.

구현모 현 대표가 차기 대표이사 최



종후보에서 직을 내려놓은 뒤 또 다시 KT 내부 출신 대표 후보가 물러난 것이다. KT 차기 리더십을 둘러싼 ‘관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표는 지난 22일 KT 최종 대표 후보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KT 이사진은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다시 원점에서 추진해야 한다. 이미 차기 대표이사 후보를 3번이나 확정했다가 다시 백지화되는 상황을 맞은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KT도 리더십 공백의 위기를 맞게 됐다. 인사 및 조직 개편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윤 사장의 사의 표명에도 KT 주주총회는 31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채운정기자

에너지 기업 폭스웰에너지와 계약

LS전선이 대만에 1100억원 규모 해저케이블 수주에 성공했다.

LS전선은 대만 에너지 기업 폭스웰에너지와해저 케이블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LS전선이 공급하는 해저케이블은 대만전력공사(TPC)가 대만 서부 해상에 건설하는 풍력단지에서 사용된다.

LS전선이 이번 프로젝트까지 수주하면서 대만 1차 해상풍력단지 건설사업 8개 프로젝트 초고압 해저케이블 공

급권을 모두 따내게 됐다. 총 계약금액은 9000억원 수준, 추가 발주도 기대된다. 또 각각의 프로젝트에서 덴마크 오스테드(Ørsted)와 CIP, 벨기에 안데룰(Jan De Nul), 독일 WPD 등 글로벌 해상풍력 사업자들과 협력을 강화, 유럽과 북미 등에서도 시장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다.

대만은 2025년까지 1차 사업을 통해 5.5 GW 규모의 풍력단지를 완공하고, 2035년까지 15GW 규모를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1GW급 원전 약 20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김재용기자